

월간 내일

GROW UP!
우리 같이 성장해요!

함께 하는 퀵커머스



플랫폼종사자
조정수·김규남 라이더의
테마 인터뷰는 16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캐치업

빠르고 빠르게!
시동 걸린 퀵커머스 시대

내일로 붙업

선한 세상을 꿈꾸는 이로운 풀
이풀약초협동조합

날마다 레벨업

조깅 말고
플로깅





매일 걷는 이 길이 꽃길이기를

어느덧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도 지나가고,
기분 좋은 따뜻한 햇살과
바람에 실려오는 꽃 향기가 길어지는 4월입니다.

지난 겨울의 안 좋았던 기억을 훌훌 털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4월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봄 기운 가득한 4월의 길이
모두에게 꽃길이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월간 내일

여러분이 걷는 길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Contents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 08 **톡톡톡**
빠르고 빠르게!
시동 걸린 퀵커머스 시대
- 10 **트렌드 인사이드**
코로나가 쓰아올린 공!
퀵커머스 성장시대
- 16 **내일이 만난 사람**
퀵커머스의 주역
배달 라이더를 만나다!
-조정수·김규남 라이더
- 22 **알아두자고용**
배달 라이더에게는 고용보험이 필요해요
- 24 **정책모음.ZIP**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Chapter 2 내일로 붙임!

- 34 뉴 스타트**
능동적 중년을 위한 끝없는 노력과 기회
-김진욱 스마트 올리브 이사
- 38 청년꿈터**
나의 발자국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순아 씨
- 42 곳&곳 오피스**
일터의 패러다임을 바꾼 공공기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46 더불어 세상**
선한 세상을 꿈꾸는 이로운 풀
-이풀약초협동조합
- 50 고용노동 뉴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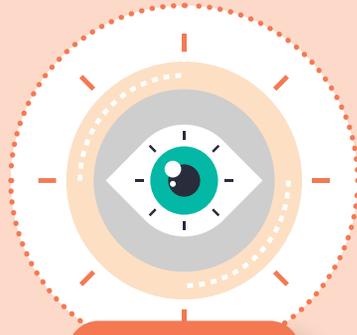
- 62 미디어 속 노동읽기**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 속
알아두어야 할 노동정책
- 66 JOB툰**
난나의 취준일기
- 68 디지털휴먼**
온라인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IT 용어
- 70 하이파이브**
알쏭달쏭 업무 용어 해설해드립니다!
- 72 주말에 뭐 할래?**
4월에는 숲을 생각한다
숲에 관한 인문 큐레이션
- 76 플레이리스트**
마음을 안아주는 위로송
- 78 그린 리추얼**
조깅 말고 플로깅
함께 실천해요! 플로깅 챌린지
- 80 내일스타그램**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63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Chapter 1



트 렌 드



캐 치 업

우리 함께 세상 읽기

함께하는 퀵커머스

“우리 뭐 좀 먹을까?” 친구가 물으면
나갈 준비를 하는 것보다
배달 어플을 켜는 것이 자연스러운 요즘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원하는 걸 받아볼 수 있는
퀵커머스 시스템은 우리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된 퀵커머스.
같이 한번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빠르고 빠르게! 시동 걸린 퀵커머스 시대

즉시배송 서비스인 퀵커머스는 이제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죠. 배달이 일상이 된 요즘, 퀵커머스 산업은 어떻게 변화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지 알아볼까요?



성장세 고공행진중!



2020년 350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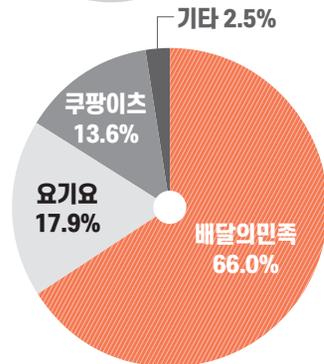
1328.6% ↑

2025년 5조 원

<퀵커머스 시장의 확장>

출처: 딜리버리히어로

지금 퀵커머스는 플랫폼 전쟁!



<퀵커머스 플랫폼 시장 점유율>

출처: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 기간: 2021년 기준



폭발하는 시장, 늘어나는 플랫폼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취업자의 **8.5%** (약 220만 명)

- 배달·배송·운전 비율 **30%**

- 청년 비율 **55%**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청년 비율>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대상: 전국 무작위 50,000명(15~69세) / 기간: 2021년 8~9월



새로운 일자리 퀵커머스 특수고용직



1,300명

1,800명

2,800명

4,000명

1월

2월

3월

4월

<배달 라이더 증가세>

출처: 바로그 / 기간: 2020년 기준





코로나가 쏘아올린 공! 퀵커머스 성장시대

코로나19가 앞당긴 퀵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며 보편화됐습니다. 1~3시간 이내로 배송되는 서비스인 퀵커머스는 정육, 채소 등의 신선제품은 물론 옷, 화장품 등의 생필품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퀵커머스 시장과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종사자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니다!



Q | 전 세계에 부는 퀵커머스 바람

Search :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커졌습니다. 경제 전반에 끼친 코로나19의 막대한 영향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업종과 스타트업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물류산업은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고객과 물류창고 사이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힌 퀵커머스(Quick-Commerce)가 있는데요. 춘추전국시대를 연상할 만큼 전 세계에 퀵커머스 바람이 부는 중입니다. 독일의 배달 플랫폼 딜리버리히어로는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퀵커머스 시장의 추정 규모가 600조에 이른다고 내다봤으니, 엄청난 성장산업이 분명하죠.

퀵커머스 성장에 따른 배달 라이더 일자리 전망

퀵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최근 1년 새 거의 모든 퀵커머스 플랫폼 라이더들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소한 용어라고요? ‘깃노동자’는 퀵커머스 산업이 가져온 새로운 노동 형태를 말하는데요. 깃노동자를 알기 전에 ‘긱경제’부터 알아볼게요. 기존의 노동시장이 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채용하던 시스템이었는데 반해, 긱경제는 기업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주문형 경제’라고도 할 수 있죠. 연주자를 즉석에서 섭외해 공연한다는 의미인 깃(Gig)에서 따온 말이에요.

결국 깃노동자란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을 맺은 후 일을 맡기는 긱경제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구하는 노동자를 이릅니다.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보다 조금 더 단기 근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깃노동자의 증가 추세가 세계적으로도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100개국의 플랫폼종사자 1만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웹 기반 플랫폼 노동은 3배, 배달 등 지역 기반 노동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깃노동자의 특성**

구분	플랫폼 기반 깃노동	전통 임금노동자
작업 장소	노동자의 집 혹은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유동적)	공공 작업공간(기업, 공장)
작업 결정	노동 플랫폼의 중개(대부분 선착순)	작업 시작 전 고용주의 명령
노동 소득	노동량에 의해 사전·사후 결정	작업 시작 전에 임금 형태로 결정
고용 계약	고용주와의 단기계약	고용주와의 장기 계약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등



퀵커머스가 대중화되며 직노동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배달 대행 서비스 ‘부릉이’ 라이더 1,00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 라이더로 일하며 가장 좋은 점은 개인 시간의 활용도가 뛰어난 것으로 답했습니다. 다음이 업무 대비 급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배달 라이더를 계속하고 싶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의견이 42%로, 반대하는 의견 15%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데요. ‘라이더의 안전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빨리, 많은 배달을 하려는 라이더와 상점주 그리고 소비자의 조급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배달 앱 등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1047건으로 전년 대비 1.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라이더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시 일반 자동차에 비해 부상의 정도나 치사율이 높은데요. 지난 2020년부터 라이더 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하기도 했죠.





Q | 배달 라이더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

Search

2019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배달 대행앱 활용 이후 배달 건수가 늘었다고 응답한 배달원은 83.9%에 달했습니다. 이 중 음식점에 직접 고용돼 일할 때와 비교해 배달앱 확산으로 직노동, 즉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때 배달 건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배달원은 29.1%로 확인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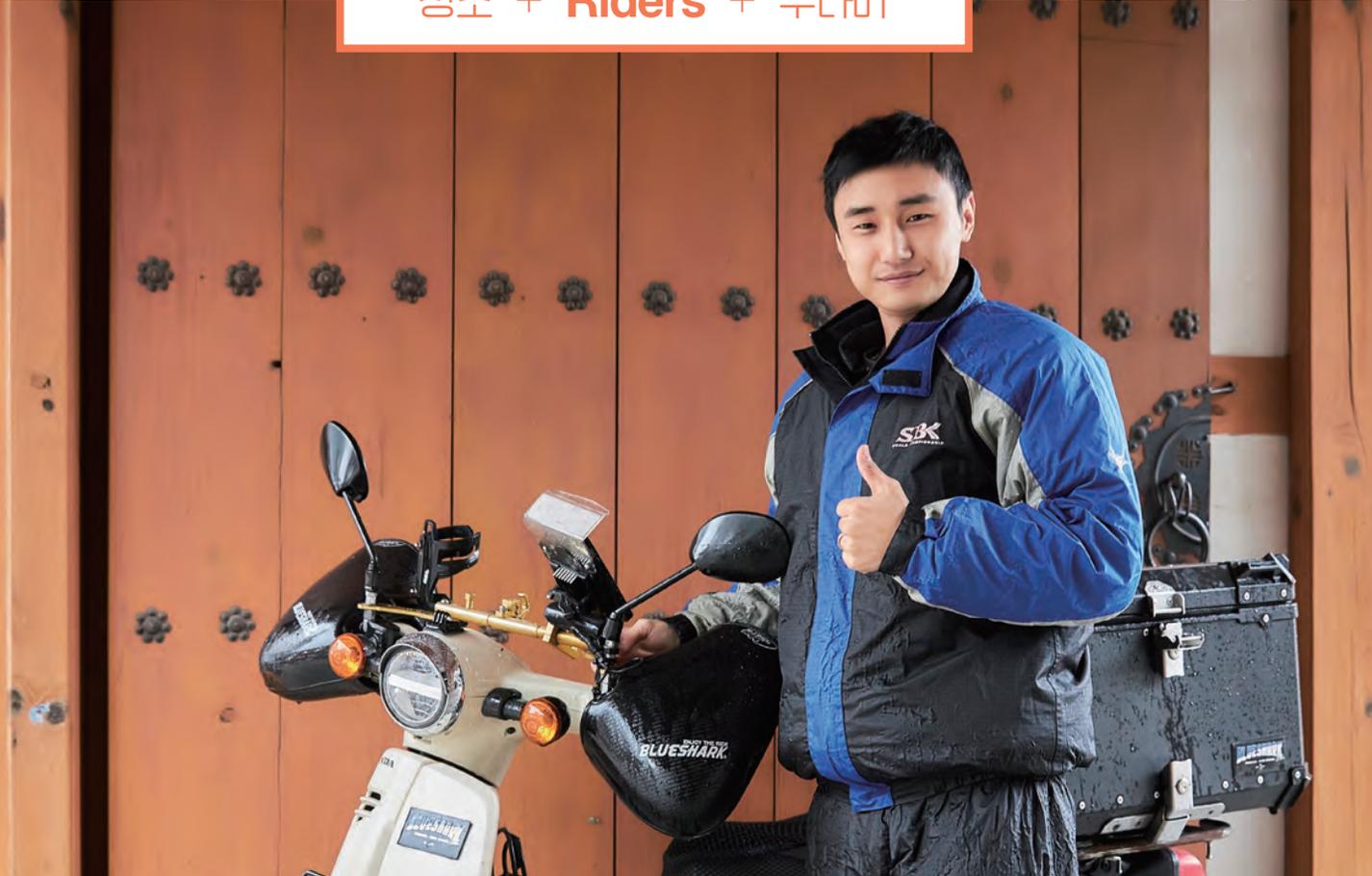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소득이었습니다. 퀵커머스 시장이 커지며 배달대행앱 활용 이후 소득이 늘었다고 응답한 배달원은 전체의 80.6%에 달했죠.

'단 건 배달'도 인기!

한 번에 한 집만 배달가는 '단 건 배달'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고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배달원이 부족해 라이더 모시기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네요.



정조 + Riders + 구내비



퀵커머스의 주역 배달 라이더를 만나다!

조정수·김규남 라이더

“
동전의 양면
같은 직업이죠
”

조정수 배달 라이더

일하는 만큼 번다는 배달 라이더는 최근 급부상하는 직노동입니다. 일과 여가를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마냥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정수, 김규남 배달 라이더를 만나 정직한 땀과 노동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_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전업 배달 라이더가 된 지는 3년쯤 됐어요. 이전까지 공무원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며 틈틈이 배달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도 했죠. 공부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가 좋았거든요. 학원을 가야 하는 평일이나 보충 학습이 필요한 주말을 피해 말씀드리면, 최대한 배려를 해서 배달 시간을 짜 주셨어요. 그때부터 배달 일이 편했죠. 3년 전부터는 전업 라이더로 옮겼어요.

3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배달 플랫폼 직원으로 입사했어요. 3개월 정도 일을 해보니,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보다는 프리랜서로 나오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업하게 됐죠. 2019년 여름부터였어요.

Q _ 프리랜서 라이더라는 건 어떤 개념이죠?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해 근무 날짜나 시간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바꾼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의 배달 라이더들이 저 같이 프리랜서로 뛰죠. 요즘엔 저 같은 사람을 직노동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정해진 법정 시간에 따라 일을 하거나 월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수익도 월급이 아닌 건별로 들어와요.

Q _ 일을 하시며 느끼는 장점이나 단점이 확실할 것 같아요.

이 일의 장단점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안 할 수 있어 엄청나게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죠.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아파도 부담 없이 일을 쉴 수

있어요. 반대로 돈이 좀 더 필요하면 일을 좀 더 하면 돼요. 단점도 여기서 비롯돼요. 바로 일을 한 번 놓으면 다시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점이지요. 주위에 라이더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2~3일 정도 일을 쉬면, 다시 일하러 나가는 것이 무척 힘들대요. 그러다가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방학이 있는 성수기에는 단가가 세서 심하진 않지만, 비수기 때는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어져요.

Q _ 유튜브 '정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계기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회사는 직장에 들어가면 동료나 선배가 일을 알려주죠. 업무 인수인계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배달 라이더는 이런 것이 전무해요. 센터가 있긴 하지만 앱을 깔고 아이디만 들어 교육 한 번 받는 게 전부죠. 이후부터는 무조건 혼자 일하며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기술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일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제가 라이더들에게 정보를 주고 싶어 시작했어요. 저 같은 전업 라이더가 많다곤 하지만, 아직도

투잡, 쓰리잡으로 배달 라이더를 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시간을 투자하며 정보를 얻기 힘든 분들을 위해 시작했죠.

Q _ 일하시며 힘들거나 기쁜 기억도 많을 것 같아요.

집 앞에 “배달 기사님 드세요” 하시며 음료 같은 것을 놔두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배달을 가면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반면, 가끔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나 무척 추운 날, 배달을 위해 가게 안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간혹 “나가서 기다리세요”라고 하시는 업주들이 있는데, 조금 속상하죠. 저희도 그 가게의 손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라이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더 필요하겠단 생각을 해요.

Q _ 그렇다면 라이더의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처음엔 배달 일이 잠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배달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며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좋아졌고, 오랫동안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저 역시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업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은 편견을 갖고 있겠죠. 전문가들도 좋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어요.

Q _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은 조점수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의미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이번 고용보험이 배달 라이더들에게 마냥 반가운 건 아니었어요. 안 나가던 돈이 나가니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첫 시행인 만큼 착오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혜택 방안을 잘 보완하면 장기적으로 너무 좋은 제도니까요. 무엇보다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직군이라는 사실이 배달 라이더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앞으로의 노동자 보호 제도 활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자유롭지만
 외롭기도 해요**
 ”

김규남 배달 라이더



Q _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첫 시작은 12년 전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피자 배달이었어요.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도 했지만, 익숙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쉴 때마다 틈틈이 배달 라이더를 했죠. 마지막으로 보안 업체에서 일했는데, 주주야 시스템이라 몸이 많이 망가졌죠. 그에 비해 월급도 만족스럽지 않았고요. 배달 업계가 익숙해서 고민 중이었는데, 배민이나 쿠팡 등 플랫폼 사업이 활발해지고 라이더에게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전업 라이더가 된 지는 2년 정도 지났어요.

Q _ 이 일을 하시며 느끼는 장점이나 단점이 확실할 것 같아요.

장점은 다 알다시피 자유로운 일정이에요. 최근 사전청약 때문에 서류를 떼러 관공서에 가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원하는 시간에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여자친구와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한다면 한 만큼 벌 수 있어요.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라는 것도 일하는 원동력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외로움이에요. 정말 외로워요. 혼자 일하는 직업이라 나를 스스로 다잡는 것이 필요한데, 외로움이 큰 방해물이죠. 다른 라이더나 지인과 통화를 할 때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Q _ 유튜브 '구나미'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유튜브를 시작하고는 외로움이 나아졌나요?

훨씬요. 많은 라이더들과 소통하다 보니 점점 외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죠. 직장 생활에서 오는 안정감이나 서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그리웠는데, 유튜브를 통해 많이 해소됐어요. 좋은 라이더 분들과 정보 교환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있죠.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며 더 소통 채널을 늘려가고 있어요.

Q _ 많은 사람들이 배달 라이더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사실인가요?

사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해요.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으



저는 10년 넘게 이 직업을 해서 배달하기에 몸이 최적화되어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오토바이 타는 게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헬멧 때문에 목도 아프죠. 처음부터 많은 돈을 바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니까요. 하지만 절대 배달 라이더를 시작하자마자 원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없어요. 가끔 뉴스에서 하루에 40~50만 원을 번다, 월에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라이더도 물론 있지만 소수라는 걸 꼭 말하고 싶어요. 배달은 너무 위험한 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거든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저는 10년 넘게 이 직업을 해서 배달하기에 몸이 최적화되어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오토바이 타는 게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헬멧 때문에 목도 아프죠. 처음부터 많은 돈을 바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Q _ 일하시며 힘들거나 기쁜 기억도 많을 것 같아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당연하고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끼어드는 차를 만나면 가슴이 덜컹해요. 항상 10시간은 넘게 일하고, 가끔 14시간씩 일하곤 하는데, 이렇게 일하다가 다 치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이 있기도 하고요.

Q _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은 김규남 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도라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혜택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구직급여가 나온다는 점이 든든하게 느껴져요. 특히 통보받고 실직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도 구직급여가 나온다는 것은 배달 라이더의 특성상 무척 유용하게 이용될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수입의 30%가 감소하면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니, 다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조금 덜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성 라이더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성 라이더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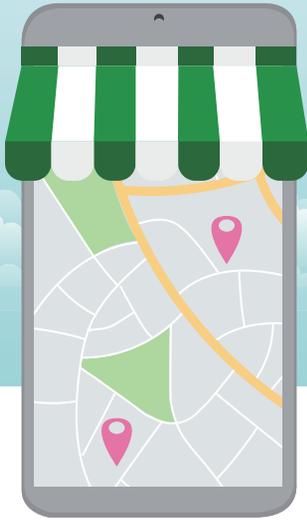
있다는 게 트라우마예요. 제가 큰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일하다 보면 주에 한 번은 꼭 배달 라이더가 길에 쓰러져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남 일 같지 않아요. 그런 날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일도 손에 잘 안 잡혀요. 나쁜 기억도 많지만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해요. 백화점에 배달 갔다가,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샀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Q _ 배달 라이더로 불안함도 많이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부러웠던 적도 많죠. 실제로 그래서 회사를 다니기도 했고요. 저에게 맞는 일은 이 일인데,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미래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오토바이 용품 사업도 하고 싶지만, 지금은 돈을 모아야 하거든요. 큰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무리하게



배달 라이더에게는 고용보험이 필요해요



•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사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들은 실업자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무엇보다 음지에서 일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배달 라이더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들의 노동을 양지로 끌어내는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세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배달 라이더들에게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겼어요!

이런 많은 장점이 있는 고용보험이 그동안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들 즉,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고용의 불안에서 플랫폼종사자들을 구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77조의 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급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요.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입 신고는 사업주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타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1.4%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가 0.7% 반반씩 납부합니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보험료 부담이 많이 없어지겠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종사자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시행 이후, 예술인을 비롯해 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왔습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안전한 배달 문화 만들어요

단 건 배달이 가능해지며 안전사고가 줄긴 했지만, 배달업 종사자가 증가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논의를 꾸준히 업계와 진행해왔는데요.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바로고 등 12개 배달업체들과 안전 협약을 체결하며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초점은 배달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이 관련된 정보나 교육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와 함께 날씨나 도로 상황을 비롯한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의 다양한 안전 교육을 종사자에게 알리기로 한 것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와 여러 기업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안전을 위해 협력하려는 의지가 뚜렷한데요.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 의식과 음식점과 주문고객의 배달 재촉 등을 업계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달 업체와 라이더, 주문고객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 날까지, 고용노동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든든할 수 있도록 폭 넓은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노무제공플랫폼사업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정책들을 주목해주세요.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기존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새롭게 생겨난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개 직종)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플랫폼종사자(2개 직종)까지 총 1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대상	<p>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 (21년 7월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및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대출모집인, 화물차주 (22년 1월 적용직종)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p> <p>[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 한 경우,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다만, 각 계약이 80만 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역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22년 1월 시행)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 별로 모두 적용</p>
피보험 자격관리	<p>[원칙]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 관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특례]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 관리 [이중취득] 노무제공자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해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p>
보험료 및 부과소득 기준	<p>[보험료] 월보수액의 1.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 각 0.7% 균등 부담) *22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 각 0.8% 균등 부담 [부과소득 기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 비과세 소득 및 경비*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월 사업주가 월보수액을 신고할 필요 *다만 월보수액 산정·확인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는 '기준보수'(133만 원) 적용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는 월보수액이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적용 (22년 기준) 건설기계조종사 2,479,444원, 화물차주 4,310,000원</p>



약 300만 명 고용보험 혜택 가능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규모는 약 300만 명이나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도사, 택배 및 쿠팡서비스, 대리기사 등이며 이들은 106~13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종사자*는 약 220만 명(2021년 8월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70.1%인 반면, 국민연금 52.6%, 고용보험은 34.4%(플랫폼종사자 국민연금 18.9%, 고용보험 16.8% 가입)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직종의 특성을 감안해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종사자란?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대행,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말하는데 IT를 기반으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 프리랜서(디지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말함.
-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불특정할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과업 혹은 일거리.
-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형태. 보통 플랫폼에 노무를 공급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취급.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노무제공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종사자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등 보험사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실직한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달리 30%이상 지속하여 소득이 감소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요건

- ①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월 이상 충족 필요
 - 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 수급 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종사 필요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신청 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신청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 ②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예]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 ②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 계약의 월평균소득보다 적으면서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③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지급수준 및 기간

- [구직급여일액] 이직 전 1년 간 월평균보수의 60%(1일 최대 6.6만 원)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
-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

▶ 출산전후급여

대통령령에 따라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지급 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급여	<p>[수급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 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p>
	<p>*단,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출산일 직전 1년간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월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p>
	<p>[지급수준·기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출산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상한액) 22년 기준 월 200만 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80만 원</p>



2020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2020년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6월 9일에 해당 법령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신규계약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7% ('22.7.1부터 보험료를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만약 소득 확인 및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렵거나 예술인의 보수가 적을 경우에는 기준보수(80만 원)를 적용합니다.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예술인으로 최소종사기간이 3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이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 6000원입니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 적용)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피보험 자격의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 일반예술인(1개월 이상)과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으로 구분
피보험 자격의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
보험료 산정	예술인, 사업주 각 0.7% ('22.7.1부터 보험료를 각 0.8%)
예술인의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 ·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 보수 80만 원 (=하한액) 적용 (*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실제 보수 적용))
고형보험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일정소득(230만 원) 미만 예술인 및 사업주 지원
실업급여	·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지급 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지급 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 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지급 수준: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60만 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Chapter 2

내 일로



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로

천천히 가되 멈추지 않고 전진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처럼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조심스레 가더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한 발 더 전진한 나를 만들어보세요.

능동적 중년을 위한 끝없는 노력과 기회

김진욱 스마트 올리브 이사

90년대 우리나라의 디지털화를 이끌었던 IT산업의 1세대 종사자들이 점차 퇴직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진욱 씨도 그 중 한 명이었죠. 중년의 인생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며 재도약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에게 자연스럽게 유기적 기회들이 다가왔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열고 있는 김진욱 씨를 만났습니다.



“무엇이든 하면 당장 성공할 것만 같았어요.”

처음에는 스타트업 스토리텔링 회사를 통해 자서전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한 사회적 기업을 시도했습니다.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었죠.

퇴직 그리고 수많은 도전

대학 시절, 사회 운동에 깊이 몰입했던 김진욱 씨는 10년 만에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당시엔 이런 과거가 남들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기업에 거절당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97년 IT 업계의 벤처기업에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1999년부터는 모바일 기업에서 18년간 신사업 개발과 출시,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50여 개의 크고 작은 서비스 사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였죠.

김진욱 씨는 시간이 지나며 빠르게 변해가는 시장의 기술과 트렌드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마주친 변화였습니다. 고민 끝에 2017년 모바일 업계를 떠나 인생의 2모작을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무엇이든 하면 당장 성공할 것만 같았어요.”

처음에는 스타트업 스토리텔링 회사를 통해 자서전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한 사회적 기업을 시도했습니다.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었죠. 학생이나 청년을 상대로 강의도 하고 보람을 느꼈지만, 길게 가진 못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 팔아보려고도 했습니다. 텐트를 제조하기 위해 익혔던 홈페이지 빌딩 기술을 바탕으로 웹 디자인 프리랜서로도 일하며 2년간 30여 개의 웹사이트를 구축했죠. 안타깝게도 이마저 부가가치가 낮고 워낙 경쟁이 심해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칠 때도 있었지만, 마냥 힘들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됐어요. 신선한 정보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동기유지가 됐거든요. 전직할 지금 돌아보면 이것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견딜 만했어요. 일을 하며 20여 년 동안 억눌러있던 사회 참여 욕구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해소할 겸 여러 가지를 했죠. 실제로 한 정당의 온라인 팀장으로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기간 내내 웹 구축을 비롯한 전반적인 IT산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죠.”

새로운 희망이 된 재도약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며 인생 후반전을 위한 작은 경험과 실패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우연히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시작하게 된 웹 디자인 콘텐츠 학과의 수업은 김진욱 씨의 많은 것을 바꿔 놓게 됩니다.

“IT 업계의 실무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 디테일한 스킬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웹 디자인 콘텐츠 학과에서 6개월 과정으로 포토샵, 일러스트, HTML, CSS 등 웹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받았죠. 40여 명의 학생이 함께 들었는데 청년층과 중년층이 고루 분포돼 있었어요. 사실 한 달 반 늦게 수업에 합류하며 처음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실습까지 하며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힘에 부쳤죠.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자부해요. 결국 졸업 때는 반에서 학업 우수상을 받고 나올 수 있었죠.”

김진욱 씨의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주었던 걸까요? 우연히 추천받은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재도약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됩니다. 동료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같은 입장의 구직자들이 전직 활동에 매진하는 것을 보며 큰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의 소개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진행하는 전문 인력 구인-구직자 매칭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됩니다.

기회를 잡는 습관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평소 희망하던 IT업계의 벤처기업과 5개월간 단기 계약해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발을 뗀 청년 기업이었던 그곳에서 김진욱 씨는 그동안 신사업 개발에 몸담은 노하우를 통해 사업 아이템 수립에 역할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수익 모델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끝나며 장기 고용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업계를 떠나고 공백이 있음에도 꾸준히 공부하고 움직였던 보람이 있었던 걸까요? 기회는 또다시 김진욱 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지난 10월 유망한 IT기업을 소개받아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쪽에선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점과 해당 업계에 필요한 업무 지식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사신 것 같았어요. 창업 5년 차의 모바일 식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씨는 모든 걸 다양한 전직 프로그램을 통해 트렌드를 읽고 감을 놓치지 않았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기획만 20여 년을 했지만, 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며 개발



자를 핸들링해야 하는 지금의 포지션과 잘 맞아떨어졌죠.

“어떻게 보면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됐어요. 신선한 정보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동기유지가 됐거든요. 전직 한 지금 돌아보면 이것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김진욱 씨는 20여 년 전, 처음 사회생활을 하던 그때와 똑같이 열정적입니다. 전직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도 주간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코딩 교육 프로그램인 파이썬을 배우기도 할 만큼요. 긍정적인 미래를 만드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를 도운 것은 다양한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들 덕분이었습니다.

Tip.

20여 년간 몸담았던 업계를 떠날 때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제2의 인생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스스로가 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는 데 고용노동부 산하의 다양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노사발전재단을 알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앞두고 있다면, 첫 단추를 꿴 데 주저하지 마세요.

나의 발자국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순아 씨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가던 청년의 후반기,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좌절은 그 어느 때보다 막막함을 안깁니다. 김순아 씨도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과 그로 인한 퇴직, 가족의 절망은 누구보다 그를 힘들게 했지만, 긍정적 사고를 잃지 않고 노력한 끝에 지금은 당당히 홀로서기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희망이 증거가 되길 바라는 김순아 씨를 만났습니다.



짧게 끝난 첫 화양연화(花樣年華)

20세에 판매직에 뛰어들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순아 씨의 삶은 순탄했다고만 할 순 없습니다. 가세가 기울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10만 원을 더 준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옮겨간 아웃도어 매장에서 오랫동안 몸담게 됩니다. 이후 그는 프로월드컵, 라푸마 등 유명 아웃도어 매장의 브랜드 매니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립니다.

매달 고객에게 자필 편지를 300통 이상 쓰고 두 달에 한 번씩 고객들과 전국의 산을 올랐습니다. 일본, 대만, 네팔 등에 원정 등산을 가기도 할 만큼 고객 관계를 기반으로 판매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백화점과 LG 패션 본사에서 매출 우수상, CS 우수상을 수상하는 건 물론, 본사에서 주관하는 우수사례 강의로 여러차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인생의 첫 번째 빛나던 시기였다는 김순아 씨는 이후 스카우트로 또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로 옮겨가지만, 예상치 못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매출이 줄어들자 계약해지 통보까지 받게 됩니다. 2020년 2월, 롯데백화점 본점에 아웃도어 브랜드를 직접 입점하며 재기를 모색했지만 때맞춰 터진 코로나19로 인해 설상가상 계약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입점 매장이 해외 여행객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죠.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열심히 달려만 왔는데, 세상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절망스러웠어요. 배웠던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국내 유통상황이 좋아지질 않더군요. 한동안 방향

직업을 전향하기로 했다면
진짜 전공자만큼의 지식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에서 배운
실습 예제를 집에서 반복해서
더 열심히 복습했더니 처음에
하나도 몰랐던 부분들이 점차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했지만, 오래 머뭇낼 순 없었어요. 가족을 이끄는 자
로서 긴 공백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커피를 만나다

기존의 서비스업을 이어나가면서도 새로운 업종으로
의 전환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워낙
좋아했던 커피를 배워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엔
무엇보다 커피에 관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유튜브
나 인터넷을 검색하며 여러 정보를 살펴보던 중 우연
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에서 배우고 싶은 교육
을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1년 가까이 소득이 없던 제가 무료
로 바리스타 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처음엔 믿기지
도 않아 인터넷으로 확인 또 확인했죠. 2020년 고용
노동부의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을 수강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게 됐어요.”

2021년 2월부터 24일간 바리스타 구직자과정3(바
리스타 1급자격증+라떼아트)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신청했습니다. 하루 4시간 과정으로 24일 동안 커피
음료제조, 라떼아트, 커피매장 영업관리, 바리스타 이
론을 배웠죠. 커피학개론, 커피역사, 커피나무와 품
종, 커피재배, 수확가공, 커피원산지, 커피와 건강, 위
생, 서비스, 매장안전관리, 로스팅 및 향미평가, 커피
추출 방식과 기구, 에스프레소 특성, 에스프레소 머
신, 에스프레소 추출 등 유익하면서도 질 높은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바리스타 실기(바리스타 1급 자격증 준비과정과 시
연과정)도 배웠습니다. 수강생은 김순아 씨를 포함해
6명이었는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강생,
20대 중반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강생, 70세 어르신
수강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낯
설었지만, 점점 열정적으로 배우고 전우애까지 생겨
났습니다. 김순아 씨는 무사히 한국커피협회의 바리
스타 1급을 취득했습니다.



시작하는 바리스타가 꿈꾸는 선한 영향력

김순아 씨는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된 후부터 꾸준히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들여다 봤습니다. 바리스타 1급을 취득하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우연히 HRD-Net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광고사진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선 뜻하지 않는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주기도 한다던데, 저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 용기가 생기니 적극적으로 HRD-Net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준비된 게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로 멋진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의 교육을 모집한다는 팝업창을 본 김순아 씨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 카페를 창업하겠다는 계획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창업비용도 부담스러웠을뿐더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족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에서 우수 수강

생으로 뽑힌 김순아 씨는 스타벅스에 지원할 기회를 얻고 끝내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김순아 씨는 2021년 6월부터 부천중동DT 스타벅스에 막내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님에도 카페 근무는 처음인 만큼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린 파트너들 속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제일 나이 많은 막내를 동생인 선배들이 업어 키우고 있다”며 웃습니다. 매장 관리나 위생관리, 고객서비스, 내부품질관리 등이 기존에 해온 의류 서비스업과는 많이 달라 힘들기도 했습니다.

“내부품질관리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처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때의 꿈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저만의 카페를 창업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만큼, 선한 영향력을 갖춘 카페를 창업하는 게 제 꿈이예요. 제가 걸어온 발자국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자's 토크〉

사실 저는 집 가까운 곳에 고용센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 휴직하며 자존감이 떨어졌던 탓인지 선뜻 가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구직자가 많다는 것을 어느 블로그에서 봤지만, 그 문을 여는 데 1년이 넘게 걸렸죠. 혹시 지금 저처럼 절망에 빠져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부디 어서 빨리 일어나 한 발을 내딛길 바랍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하면 어렵지 않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HRD-Net이 무척 유용했어요.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며 소식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일터의 패러다임을 바꾼 공공기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공기관 근무라고 하면 흔히 딱딱하거나 권위적이고 반복적인 모습이 떠오릅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일터 혁신 전환으로 준정부 기관 중 유일하게 인증 취득에 성공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다녀온 뒤론, 그런 선입견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공공기관 일터의 패러다임을 바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을 함께 알아볼까요?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진흥원에는 일반 사무직과 전문직, 디자인, 인쇄 업무, 고객센터 등 직종이나 인적 구성이 무척 다양합니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제 인증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산하기관으로 우체국 쇼핑, 우편 고객센터, 우편상품 제작 등의 우편 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90여 년의 역사로 오랜 시간을 거치며 기관의 본질적인 사업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의 우정 문화 보급과 확산의 고유기능을 성실히 수행 중입니다. 특히 우체국 쇼핑물은 전국에 산재한 뛰어난 농산물을 발굴해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제'에서 인증 취득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준정부기관 중 유일해 그 의미가 더 깊었습니다. 민재석 원장이 2020년 4월 부임 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체질 개선과

혁신 활동을 이어온 것이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진흥원에는 일반 사무직과 전문직, 디자인, 인쇄 업무, 고객센터 등 직종이나 인적 구성이 무척 다양합니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민재석 원장은 중장기 혁신체계를 기반으로 열린 참여형 인사제도인 인터넷 모빌리티를 추진했습니다. 일환으로 기관 최초로 무기계약직 3명을 부서장으로 임명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명은 콜센터, 1명은 디자인 부서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직위 공모 시, 해당 직위에 대해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규정상 보직자 임명 기준에 충족하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도록 열었습니다. 그동안 일반직, 연구직 직군에서 부서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부분이었죠. 관행을 타파하는 혁신을 추진해 타 직군의 능력 있는 직원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친 내부 인사공모제도는



노사관계는 말 그대로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고유의 목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진흥원도 발전하기 위해서 노사협력이 가장 중요하죠.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입사 방법이 달랐던 직군들의 전환을 위한 타협과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유리천장에 가로막힌 경력단절 여성 등 능력이 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던 직원들을 위해 꾸준히 인턴널 모빌리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공공기관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을 통합하고자 노력하는 진흥원은 '주인은 직원'이라는 인식을 제고합니다. 이를 위해 민재석 원장은 다양한 직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소통을 추진했습니다. 일방적인 하향식의 사결정 프로세스가 아닌 양방향이고 상향식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니어 보드'입니다. 입사 5년 미만의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실무자 위주의 젊은 사원 20여 명으로 이뤄진 주니어보드는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이나 업무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주니어 보드에서 나온 생각과 건의 사항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용하는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직원 소통 채널 역할에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또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한참 전에 와있거나 퇴근 시간보다 더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영등포에 위치한 본사의 직원들은 대부분 인천, 부평, 부천 등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아 논의 끝에 지난 2021년 부평에 제2 고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약 30여명의 직원이 그곳에서 근무하며 왕복 1시간을 넘기지 않는 출퇴근 시간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말 그대로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고유의 목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진흥원도 발전하기 위해서 노사협력이 가장 중요하죠. 때문에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이나 발언권이 정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집행과정의 신속성까지 더해지는 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어요. 대부분 직원이 노조와 관련돼 있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노조 활동을 통한 의사전달 체계가 있으면 기관 운영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통한 의사 전달 체계가 있으면 기관 운영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과
봉사활동을 통한 ESG 경영**

마음만은 직원에게 평평 퍼주고 싶지만, 공공기관이라 그럴 수 없다는 민재석 원장은 “최소한 집보다는 시설이 좋아야 직원

들이 회사에 나오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고객센터 직원들의 의자에 목받침을 달기도 했습니다. 별 것 아닐 수 있지만, 일반 고객센터 직원들은 목받침이 없는 의자를 사용합니다. 직원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회사가 그만큼 많다는 사실이기도 하죠.

진흥원의 복지는 목받침처럼 작지만, 꼭 필요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것들입니다. 휴게실과 화장실을 가능한 선에서 최고로 개선하고 고객센터 직원들을 위해 안마 서비스와 리클라이너 의자를 제공합니다. 근무 시간 역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통제 중심에서 자율 중심으로 운영하되 성과가 좋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만 회사를 운영하며 편견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비상임이사 전문 자문 활동을 통해 경영혁신도 추진합니다. 시민참여 모니터링을 개최하고 소평 고객센터와 ESG 경영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환경을 위한 활동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친환경 박스를 쓰고 끈이나 비닐 테이프를 쓰지 않습니다. 보냉재도 친환경 물로 넣습니다. 박스 인쇄는 최대한 단색으로 글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인쇄 시 코팅도 하지 않지요. 고객센터를 통해 공적 역할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독거노인에게 전화를 드려 말 상대가 되어드리고 있어요. 최대한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범 기관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만의 특별한 인재상

우편, 그 이상을 실현하는
NEXT 포사인

N : NEW
혁신과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우편 사업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인재

EX : EXPERT
전문지식과 노하우로 최고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인재

T : TRUST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국민의 행복과 공익을 실현하는 인재

선한 세상을 꿈꾸는 이로운 풀

이풀약초협동조합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초’라고 하면 흔히 의료기관, 한의원에서 취급하는 약재만 생각합니다. 사실 약초는 생각보다 꽤 큰 영역의 재료입니다. 황기나 당귀, 맥문동은 물론 갈근, 백수오, 차조기잎 같은 낯선 약초들도 많지요. 어디서 재배했는지, 어떻게 먹는 것이 효과적인지 잘 몰랐던 약초들을 대중화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생산자의 판로까지 개척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 이풀약초협동조합을 방문했습니다.



전국에는 나뭇의 신념을 지켜가며 정직하게 약초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약초가 오랜 관행이 아닌 건강하고 세련된 문화로 자리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운 풀을 알리는 사회적 기업

이로운 풀의 효능을 친근하고 따뜻하게 세상에 알리겠다는 이풀약초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전국에서 약초를 재배하는 정직한 약초농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약초생산자단체 한국생약협회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이죠. 단순히 의료기관에만 공급되는 약초에서 탈피해 대중화한 약초를 가지고 소비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돕기 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약초농사를 지어도 값싼 수입약재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부들이 많습니다. 반면, 소비자는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내 가족이 먹기에 안전한 약초인지를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농부와 소비자를 잇고자 이풀약초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17명의 조합원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9년이란 시간 동안 이풀약초협동조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돼 첫 삽을 뜬 이풀약초협동조합은 산림청의 예비사회

적기업 지정과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우수창업팀 최우수상 등을 거쳐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약초

중간 거래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1차 산물의 특성을 벗어나 직접거래를 지향하는 만큼,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를 받은 농가와 거래합니다. 노봉래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한국생약협회에서 근무하던 시절,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인 GAP 인증을 정부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현재 조합원들은 GAP 인증을 받는 농가이거나 무농약 또는 유기농 방식으로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모든 농가가 GAP 기준에 맞게 잔류 농약 검사를 받고, 재배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관리를 받습니다.

“전국에는 나뭇의 신념을 지켜가며 정직하게 약초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약초가 오랜 관행이 아닌 건강하고 세련된 문화로 자리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



습니다. 전통의 약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상품을 만들고 세상과 연결합니다.“

약초의 활용법이 낯선 사람들에게 벽을 허물고자 약초 교육프로그램인 약초 학교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짜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한편, 원데이 클래스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조합이 자리한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 돌레에 다양한 약초를 심었는데, 참가자들은 여기서 약초를 캐거나 재배한 약초로 차나 천연비누를 만들고 염색을 체험했습니다.

최근엔 약초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구기자, 둥굴레, 황기, 칩뿌리, 맥문동, 연근, 우영, 무말랭이, 오가피, 당귀 등을 넣어 국물 요리에 적용할 수 있는 채소다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약초로 티백 차도 개발했습니다. 커피의 대체품으로 주목받으며 시장에서 반응도 좋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박람회나 회의에서 약초 차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만나기 힘들어진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 쇼핑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전국의 농부들이 원재료를 어느 정도 작업해 보내긴 하지만, 대량 거래가 아닌 만큼 이풀약초협동조합의 직원들이 한 번 더 꼼

꼼한 검수를 거칩니다. 색상이나 알맹이 상태를 보고 고르는 작업 등이죠. 도시의 소비자들은 많은 양을 사기보다는 질 좋은 품목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매하는 열 여섯 가지의 약초와 일곱 가지의 블렌딩 티 그리고 채소다시 등은 생활협동조합이나 한살림 등에 판매하고 기업체에 단체 납품되기도 합니다. 간혹 수출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해외 고객을 위해 아마존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약초의 시대를 위해

이풀약초협동조합의 가치는 약초의 대중화와 판로 개척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발달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직무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이로운 풀로 세상과 소통하기 아트워크숍’을 개최해 발달장애 청년에게 색다른 경험을 나눴습니다. 당시 발달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해 설립된 커리어플러스센터로부터 직무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시작한 일입니다.

“서울혁신센터가 다른 사업장보다 공간이

이풀은 당장의 수익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성 들여 이로운 풀을 가꾸고 좋은 것만 골라 누군가에게 이로움이 되도록 전달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이풀이 가진 가치입니다.





개방돼 있고 이폴약초협동조합의 업무가 다양해서 발달장애인이 일하며 배우는 곳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취급하는 품목도 독특해 훈련생에게 좋은 경험이지요.” 주기적 참석자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같이 일하다 보면 보람 있는 일도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원과 겪은 일화를 담은 웹툰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이 있는 김태환 씨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졌는데, 최근 이런 실력으로 멋진 달력을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이폴약초협동조합만의 방식입니다. “이폴은 당장의 수익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성 들여 이로운 풀을 가꾸고 좋은 것만 골라 누군가에게 이로움이 되도록 전

달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이폴이 가진 가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돼 구독 경제 시장을 개척하며 유통 판로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약초 정기 구독 서비스인 ‘이폴 일상’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특정 달에 재배되는 싱싱한 제철 약초를 그 달에 먹을 수 있는 이폴만의 특별한 구독 서비스였죠. 이폴약초협동조합은 최근 정부로부터 GAP 인증 기관 위임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300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을 내어줄 계획입니다. 생산관리와 제품 생산을 판매하고 교육을 제공하려는 초기 사업 모델이

이로써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가치를 지켜온 이폴약초협동조합의 새로운 10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Tip.

협동조합의 형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판매나 유통의 경우 상품과 가격대를 맞춰야 해 쉽지 않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회적경제 박람회나 장터가 열리면 최대한 참가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처음 협동조합을 만들 때 생각했던 가치를 잃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MOEL News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111개 대학을 통해 2022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선정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진로·취업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력개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추가로 선정된 40개 대학은 지역 산업 특성, 대학 특성, 산업·채용 변화 양상을 반영한 별도의 「거점형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예시>

- (경성대) 부산 지역 특성 및 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한 ①글로벌관광·MICE산업 ②지능정보서비스 메타버스·블록체인 ③라이프케어(K-뷰티) 등 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약 200명)
- (영남이공대) 지역 고교 청년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사전직무교육·추천채용·일학습병행과정 운영(약 450명) ②산업 분야별 맞춤형 취업준비반 운영(약 330명)
- (원광대) 전북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①식품현장·HACCP 등 실무 ②탄소기초·응용 ③지능형 웹 서비스, 시큐어코딩 앱 개발, 메타버스 기반 게임기획 인력 양성 과정 운영, 취업취약계층 대상 참가자 모집(약 270명)
- (인하대) 빅데이터 장·단기 과정, 데이터베이스 & SQL 집중과정, AR·인공지능 게임프로그램 개발자 과정,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 운영(약 380명)

또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그간 대학 재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한 대학일자리센터를 개선하여 졸업 2년 이내의 청년 및 지역 청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지원전담자 배치, 대학생활·심리 전문상담 연계 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21년 182억 원→'22년 325억 원)하여 올해 111개 대학을 지원('21년 100개)하며, 개별 대학에 5년간 최대 약 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3일 '22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할 48개의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운영하던 63개 중 43개 대학의 사업유형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전환해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9개 대학(강남대, 경남도립거창대, 금오공과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구한의대, 부산여자대, 수원대, 한영대(가나다순))은 기존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대학으로 올해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올해는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되면서 새로 참여하게 된 11개 대학과 함께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확산되며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향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2

중소기업 현장에 딱 맞는
훈련과정 운영 지원!
훈련비 지원은 물론 훈련과정
개발까지 함께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 14개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신의 업무 현장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산업 구조 변화와 디지털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역량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져 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실제 업무와 직결되는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8년에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지원사업’을 도입하였고, 참여기업의 호평과 함께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지역, 산업 분야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존의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개편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인근의 센터에서 안내·상담부터 다양한 분야의 훈련과정 개발·운영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총 14개소의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로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도 재선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는 기업의 훈련과정 운영, 정부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안내, 상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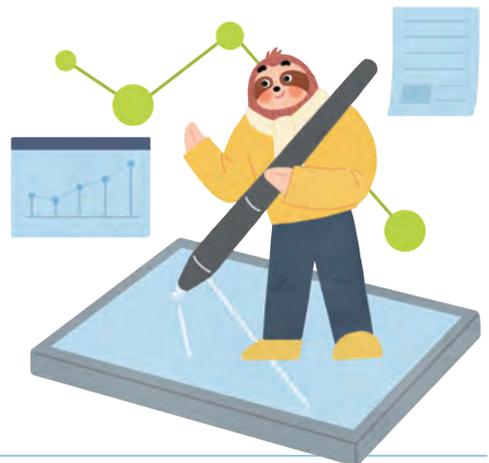
상시 제공하며,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적합한 훈련과정 개발, 훈련비 지원 및 기업의 역량 개발 방향 제시까지 전 단계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의 수요와 직무 특성을 먼저 진단, 분석한 후, 이에 따라 적합한 훈련방식을 제시하고 기업과 함께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신기술* 활용도 제고', '생산 문제 해결' 등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특화 현장훈련(S-OJT 특화)'을 통해 훈련 운영 방법 및 훈련비 지원 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지원사업'은 2022년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연내 1,025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또는 권역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에서 신청 자격, 신청 절차 및 구체적인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은 지식이나 이론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별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훈련이기에,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전문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근무 시간과 별도로 훈련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 재직자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경로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K-디지털 분야(스마트제조, AI, 빅데이터 등) 및 기타 신기술 분야



MOEL News

3

재취업 성공, 기업에서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 1,000명 이상 기업 958개소의 서비스 운영 결과를 확인한 결과, 총 725개소(75.7%)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000명 이상 기업의 제도 이행 비율이 20% 미만인 점과 비교할 때 약 5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행률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업주의 인식부족 및 제도설계의 어려움,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음을 인식하고 2021년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을 실시(302개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합니다.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20년도 958개소 → 2021년도 1,031개소 → 2022년도 1,043개소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4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 예산(95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 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5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합니다.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호와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보호구 착용 등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사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면서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지난 2월, 두오산업(주)(창원 소재), (주)대오알엔티(김해 소재)에서 세척제에 의한 유기용제 중독자가 발생되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두오산업(주) 16명, (주)대오알엔티 13명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확인



6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 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76만 명(2021년 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신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2022년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택송기사, 서버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 (기존) 사유 제한없음 ⇒ (개선)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 휴업으로 한정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자간 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그간 정부는 2022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21.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시행 → ('22.1월)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2.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적용(5개 직종)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3월 말 입법예고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8

제14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4일 10시 제14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 총 29명의 정책기자단(이하, '기자단')을 위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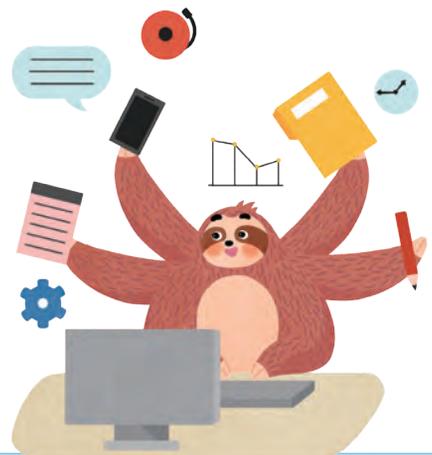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서 기자단은 위촉장 전달과 기사 작성 강연 등의 안내를 받으며 향후 9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4: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14기 기자단은 각지에서 지원한 다양한 배경의 29명 국내외 기자단으로 국내 기자단(25명)은 학생뿐 아니라 청년 인플루언서, 벤처 사업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활동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외기자단(4명)은 독일, 필리핀, 케냐, 스리랑카 등 국가에 거주하는 유학생, 엔지오(NGO) 직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기자단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여러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블로그 기사를 비롯해 카드뉴스, 정책홍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일 년 동안 게시된 정책 관련 현장 탐방, 인터뷰 기사 등 자료는 책자 형태로 엮어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정경훈 대변인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과 정부를 잇는 창구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께 적시에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책기자단들도 “내 가족, 이웃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막중하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기자단 발대식 영상을 비롯해 기자단이 전하는 알찬 소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일은 핫하게!
힘은 쿨하게!

사무실에선 업무 관련 정보
서치하느라 정신이 없고
주말엔 SNS로 트렌드 따라잡느라
손가락이 아프다고요?
일은 핫하게, 힘은 쿨하게
즐길 줄 아는 당신을 위해
4월에 실속있게 활용할 수 있는
꿀정보들을 준비했어요.



너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주마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 속 알아두어야 할 노동정책

굳은 신념으로 언제나 당찬 신입 군검사 차우인, 권력과 돈을 위해 군대 생활을 견뎌온 배도만. 인듯 보기엔 선임과 후임의 관계일 뿐이지만, 기억 저 너머에는 풀리지 않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군대라는 배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속 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보다 높은 계급은 없다 “당신은 검사인가, 군인인가”



군사법원에 새로 발령받은 신입 군검사 차우인. 선임인 도배만과 함께 법무참모 서주혁 소령에게 인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 소령은 두 사람에게 “당신은 검사인가, 군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계급과 법, 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군 조직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한 도배만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군인’이라고 답하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반면 차우인은 ‘법보다 높은 계급은 없다’며 자신은 검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서 소령의 미움을 받게 된 차우인 검사, 과연 그녀는 군 생활을 순탄히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나요?

역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 조직의 특성상, 상사가 아무리 부당한 지시를 한다고 해도 단칼에 거절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때, 부하직원이 어쩔 수 없이 이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그 지시가 법에 저촉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겠지요. 이 때,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노무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50에 전화해보세요!

벗어날 수 없는 군인의 운명 “사법고시만 패스하면 만사형통일줄 알았는데”



군인이었던 부모님을 둘 다 불의의 사고로 잃은 도배만. 어린 시절 끔찍한 기억은 그에게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중학생 때 퇴학을 선택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사시에 합격했지만 ‘중졸’의 그를 반기는 곳은 없습니다. 이때 로펌 ‘로앤원(Low&one)’의 대표 변호사 용문구가 그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군검사로 5년 동안 굵은 일을 처리해주면 높은 연봉으로 스카웃하겠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싫어 선택한 중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다시 군 생활을 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과연 도배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잠깐!

제대 후 취업길이 막막하다면?

청춘,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10~20대 시절을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위해 바쳐야 합니다. 사회에서의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들이 제대 후 취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방부와 함께 의무복무 제도 내에 장병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고졸 이하(폴리텍대, 방통대 졸업자 포함) 의무복무자에게 입영 전 국가에서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기술병으로 군 복무 후 전역 시 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차량, 헬기 정비, 용접, 통신, 중장비 운전, 전기,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할 수 있다고 하니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상사의 관심 “자네 머리가 옷깃에 닿잖아?”



서주혁 소령은 상사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차우인 검사가 알립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쩌다 마주친 차 검사를 붙잡고 괴롭히기 일쑤인데요. 머리 길이를 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트집을 잡는 서 소령. 차우인 검사는 군의 복장규정을 똑똑히 읊어주며 자신의 차림새가 복장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서 소령은 끝까지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꾀꼬리 모습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틀린 게 하나 없는 차 검사의 말에 한 발 물러납니다. 서 소령과 차 검사의 관계는 이대로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상사의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고달프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포함,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차 검사를 괴롭히는 서 소령의 행태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볼 수 있겠죠. 물론, 대화로 풀이 가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끝내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온라인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IT 용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와 마케팅은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이면서 때로는 공급자이고, 마케팅의 주체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마케팅에 사용되는 IT 용어들은 생소할 때가 많습니다. 온라인상의 거래 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마케팅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EC)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란 종이에 의한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간 표준 전자문서를 교환해 즉시 업무에 활용하는, 전자 매체를 이용한 상거래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인터넷상에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래되는 상품에는 실물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의학적 진단 등 서비스나 뉴스, 오디오 등 디지털 상품도 포함됩니다.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의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기관과의 관련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때 전자상거래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라고 합니다.



어필리에이트(Affiliate)

어필리에이트(Affiliate)란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상품을 자신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홍보하고 구매를 이끌어내면 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제휴 마케팅이란 말로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큰 규모의 기업만이 다른 기업과 제휴를 맺어 광고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개인 마케터도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기업의 상품을 대신 홍보하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디지털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SEO와 SEM

어떤 사이트든 더 많은 사용자가 방문하게 하려면 검색 결과의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EO(검색엔진 최적화, Search-Engine Optimization)란 검색엔진에서 특정 결과가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색엔진으로부터 어떤 웹사이트에 도달하는 트래픽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작업이죠. SEM(검색엔진 마케팅, Search Engine Marketing)은 이 같은 효과를 이용해 특정 웹사이트로 방문을 유도하고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인터넷 마케팅을 말합니다. 또는, 검색 결과 옆에 관련 광고를 게재하도록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죠. 유명 검색엔진에 웹사이트를 등록하거나 상위 랭킹에 나타나게 하면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광고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CMS

CMS란 콘텐츠 관리 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의 약어로,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문서, 이미지, 동영상, 소리 등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저작도구를 비롯해 B2C용 콘텐츠 관리 시스템, B2B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자 카탈로그 관리 시스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선보이는 CMS는 기업 내 경영 활동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 다양한 정보 시스템과 연동되면서 웹서비스에 필요한 소스코드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CMS 시장은 인터넷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Landing Page)

랜딩 페이지(Landing Page)란 웹사이트 방문자가 최초로 보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제작자나 디자이너가 랜딩 페이지를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방문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방문자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 불필요하거나 혼란을 주는 내용을 최대한 피하고, 방문자가 쉽고 빠르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랜딩 페이지 최적화(Landing page optimization; LPO)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나 클릭한 배너 종류에 따라 페이지를 최적화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페이지 뷰(Page View)

페이지 뷰(Page View)란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열람한 횟수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 홈페이지를 본 수치를 계량화한 것입니다. 보통 인터넷 광고에서 광고주에게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웹페이지를 찾는지 설명할 때 사용되며 이것이 사이트의 광고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광고주·투자자는 물론 인터넷 업체도 사용자의 특성을 분석해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히트 수가 있습니다. 히트 수는 한 페이지 내에 포함된 여러 개의 그래픽 파일 등 사용자들이 클릭한 요소들의 횟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사이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알쏭달쏭 업무 용어 해설해드립니다!



읽는 것조차 버겁... 대리님의 영어 줄임말

AS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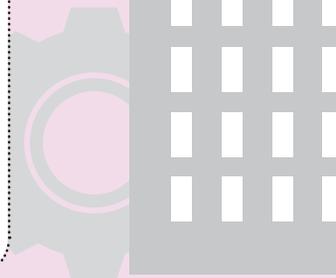
'As Soon As Possible'의 줄임말로 '가능한 빨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채팅에서 줄임말로 사용되기 시작해 이제는 사무실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읽기도 하니,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요청한 자료 아삽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R&R

'Role and Responsibility'의 약자로 직역하면 '역할과 책임', 해석하여 '업무 분장'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R&R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야말로 회사생활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덕목이겠지요.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줄임말이며, '핵심성과지표'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이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영상을 만드는 홍보 담당자에게는 '영상 조회수'가 KPI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격식을 차리거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 한자어나 영어로 된 줄임말이 대표적입니다. 함께 일을 진행하는 ‘우리’끼리 사용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새내기 사원 혹은 연세 지긋한 부장님과 함께 한다면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이번 하이파이브 코너에서는 부장님부터 대리님까지 속 시원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부장님의 한자용어

불출

떨칠 불(拂), 날 출(出)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돈이나 물품을 내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간 비품이나 비용 등을 기록하는 ‘불출대장’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무용품을 불출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

짓다, 만들다 재(裁), 옳다, 허락하다 가(可)입니다. 한자 그대로 ‘허락을 만드는 일’이며 순화해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안건을 승인받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지요. “업무 수행을 위해 도서 구매를 희망하오니 재가를 요청드립니다”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상신

윗 상(上), 거듭 신(申)입니다.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과 관련된 내용을 말이나 글로 보고하는 일”을 뜻하며 “올리다”, “보고하다”의 동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됩니다. “해당 건은 이미 상신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푸르게 싹을 틔우는 4월에는 숲으로 가 싱그러운 나무와 풀, 흠냄새를 맡고 싶어집니다. 숲은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공간인 만큼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4월에는 숲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4월에는 숲을 생각한다
숲에 관한 인문 큐레이션



우리를 회복시키는 숲의 힘
다큐멘터리 <숲, FoRest>

올 2월 KBS 다큐ON에서 방영된 <숲, FoRest>는 여행 마니아로 알려진 배우 이기우가 겨울의 숲을 거닐며 느낀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숲에 모여 담장 없는 보금자리에서 '숲 살림'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천년고찰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이 품은 오래된 이야기 등을 소개합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바람과 햇살이 맞아주는 숲 길을 걸으며 도시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숲의 탄생을 둘러싼 신비한 비밀
다큐멘터리 <숲의 전설>

고대 핀란드인들은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축으로 하늘이 뿔어나가 세상을 뒤덮고, 나무가 하늘을 떠받치며 우주를 지켜준다고 믿은 것이죠. 핀란드 다큐멘터리 <숲의 전설>은 오랜 세월 변함없이 보전되어 온 핀란드의 자연림과 야생 동식물들을 8년에 걸쳐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대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고 섬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관한 핀란드의 신화와 민담을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지구 위 모든 것들의 소통
책 <숲은 고요하지 않다>

여러분은 숲이 고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아직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본 적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새, 달팽이, 버섯 등 숲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독일의 여성 행동생물학자 마들렌 치게는 <숲은 고요하지 않다>에서 숲속 생물들의 다채롭고 기상천외한 소통의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이처럼 다양한 '자연의 언어'를 꿰뚫어 보는 시선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장대한 자연 속을 걷다
책 <나를 부르는 숲>

'세계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여행작가'라는 별명을 가진 빌 브라이슨의 대표작 <나를 부르는 숲>은 장장 3,500km에 이르는 애플라치아 트레일에 도전한 저자의 고군분투를 그립니다. 애플라치아 트레일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험하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절경을 간직한 길이죠. 저자는 여정 내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자연을 걷는다는 순수한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숲과 나무가 주는 아름다움과 인간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빌 브라이슨의 여정에 함께해보세요.



나를 만나는 숲 산책
책 <숲과 상상력>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숲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나무 인문학자 강판권 교수가 숲길을 걷는 즐거움을 안내합니다. <숲과 상상력>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우리나라 숲의 정취를 담아낸 책입니다. 저자는 숲을 '나무들의 공간'이자 '생명의 공간'이라 설명하죠. 숲속 곳곳에는 인간이 나무와 함께한 사연이 묻어 있습니다. 숲길에서 나무들의 삶을 보며 나의 삶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숲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책 <숲은 생각한다>

숲은 동식물의 다양한 생각과 의미로 가득 찬 흥미로운 세상입니다. <숲은 생각한다>는 캐나다의 인류학 교수이자 코스타리카에서 장기간 생태학을 연구한 저자 에두아르도 콘이 4년간 아마존 숲속의 생활상을 관찰한 결과물입니다. 인간 중심의 관점을 넘어 아마존 숲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숲으로 간 인류학자의 치밀한 성찰을 통해 숲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알아봅니다.



비밀스러운 숲속 세계 이야기

영화 <에픽: 숲속의 전설>

숲을 지키려는 자들과 파괴하려는 자들 사이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에픽: 숲속의 전설>은 비밀스러운 숲속 세계에 관한 상상을 그린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숲을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답게 재현한 것이 특징인데요. 숲 속의 빛과 생기 가득한 공기까지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숲 속의 작은 전사 리프맨의 갑옷과 투구 디자인에 신라시대 화랑의 모습이 투영된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에 한국 애니메이터가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순수한 건 오염되기 쉽죠”

영화 <우리정원>

홀로 숲에 숨어 엽록체를 이용한 인공혈액을 연구하는 과학도, 그리고 그녀를 훔쳐보며 초록의 피가 흐르는 여인에 대한 소설을 쓰는 무명 작가가 있습니다. 미스터리 영화 <우리정원>은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세상에 밝혀지게 되는 충격적인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일상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영화 속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숲들은 CG가 아니라 실제 창녕 우포늪 등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나만의 작은 숲이 필요할 때

영화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는 진정한 삶을 찾기 위해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잔잔한 힐링 영화입니다. 주인공 혜원은 시험, 연애, 취업 등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에 지쳐 고향으로 잠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봄에는 꽃 파스타를 만들고, 여름에는 오이 콩국수를, 가을에는 밤조림, 겨울에는 곱감을 만들어 먹으면서 혜원은 새롭게 성장합니다. 잠시 지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숲이 필요할 때,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추천합니다.



숲에서 마주한 공포

영화 <리추얼: 숲속에 있다>

네 명의 친구가 스웨덴 원시림으로 하이킹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나는 숲이 어딘가 음산합니다. 네 친구는 이 미스터리한 숲 안에서 기이한 존재를 만나고 이상한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영화 <리추얼: 숲속에 있다>는 고요하고 울창한 숲이 주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포근하고 따뜻한 숲이 아닌, 스산하고 공포스러운 숲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화 <리추얼: 숲속에 있다>를 감상해보세요.



사람과 정원, 그 안의 이야기
유튜브 <오 마이 가든>

숲과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타사 튜터처럼 멋진 정원을 가꾸며 살고 싶은 로망이 마음 한 편에 있을 텐데요. 나만의 숲, 나만의 정원을 꾸미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가든>은 가드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모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제주에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의 다양한 정원, 그리고 정원을 꾸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도심 속 숲 나들이
유튜브 <서울숲공원>

유튜브 채널 <서울숲공원>과 함께 도심 속에 위치한 아름다운 숲, 서울숲으로 랜선 나들이 어떠세요? 서울숲 공원 내의 다양한 식물과 계절별 풍경들을 둘러볼 수 있고, 서울숲에 사는 동물들의 일상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드닝 교육, 서울숲학교, 자원봉사 등 서울숲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소개합니다. 서울숲에서 일하는 숲 해설가, 사육사, 조경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숲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유튜브 <대한민국 산림청>

산림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숲길 풍경과 다양한 숲문화에 대해 만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숲길을 방 안에서 즐기며 길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숲에서 나는 재료들로 만드는 요리 레시피, 올바른 산행 문화, 나무 심는 법 등 다채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산림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 숲 가꾸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도 하고, 산불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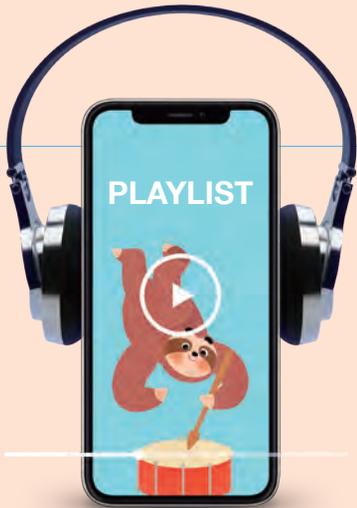


숲에서 누리는 여가
유튜브 <산림복지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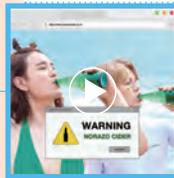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유튜브 채널 <산림복지TV>는 음악, 여행, 목공, 숲테라피, 숲체험 등 숲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숲 ASMR과 요가 영상, 놀이 영상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들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나 산림치유지도사, 유아 숲지도사 등 산림복지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담고 있어요. 우리 곁의 숲을 더 가깝고 친근하게 만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마음을 안아주는 위로.송

동네복도 아닌데 오늘도 어김없이 상사에게 깨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 한거죠? 퇴근길 지친 직장인을 위로해주는 건 노래 뿐.
토닥토닥, 마음을 안아주는 위로송 플레이리스트.



1.



노라조
‘사이다’

‘팀장님 진짜 답답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사이다로 땡~ 뚫어버리세요!

2.



이적
‘걱정말아요 그대’

오늘 깨지고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지난간 것은 지난간 대로...
흘러 보내 버리자고요

3.



선우정마
‘도망가자’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나요?
내 마음 200% 대변하는 위로송
어디든 가야할 것 같으니
도망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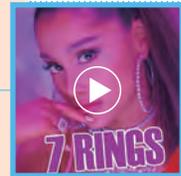
4.



장기하
‘그건 니 생각이고’

팀장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팀장님
생각이고요!!”

5.



Ariana Grande
‘7 rings’

상사에게 깨져도 나는 굴하지 않지
내 자존감 극박시켜줄 노래
‘I want it, I got it~’
팀장이 뭐라해도 내가 짱이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는?

다음달 주제는 **‘사랑에 빠진 동료에게’**입니다. SNS에 #월간내일_플레이리스트 #러브송 해시태그를 걸고 콘텐츠를 공유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월간내일 인친들이 추천하는 위로송 플레이리스트.
 인친들의 마음을 토닥토닥해주었던 더 많은 위로송은
 옆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고용노동부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윤하
‘오르트 구름’

두려움은 이제 거둬 오로지
 나를 믿어~! 예전의 나도 지금의
 나도 다 나니까.
 나를 믿고 오늘도 내일도 그 내일도
 버텨봅시다. 나 자신 파이팅!

2.



권진아
‘문턱’

잘하고 싶은 마음은 넘치는데 상황이나
 실력이 따라주지 않을 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럴 때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위로해주는 기분이 듭니다.)

3.



스웨덴 세탁소
‘두손, 너에게’

하루종일 이리저리 치이고,
 진이 빠진 채 터벅터벅 집으로
 향할 때 들으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4.



커피소년
‘7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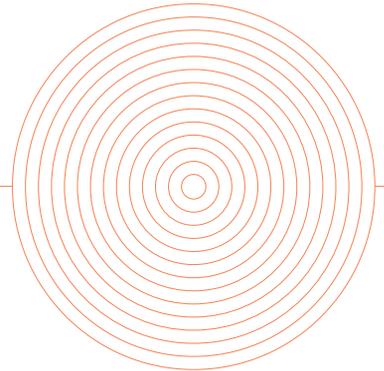
실수하면 뭐 어때?!!
 사람이 완벽할 수 없지
 모자라니까 사람인 거잖아!!
 인간적이에요 75점만...

5.



콜드플레이(Coldplay)
‘Fix you’

“진짜 이렇게 평생을 산다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단색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퇴근길에 들으면 잔잔하게
 위안이 되어요. 특히 야근하고
 돌아가는 날 강추!



조깅 말고 플로깅

함께 실천해요! 플로깅 챌린지



‘플로깅’ 열풍이 뜨겁습니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달리는 운동’을 뜻하는 영어 ‘Jogging’의 합성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줍다’와 ‘조깅’을 합쳐 ‘줍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플로깅’은 환경보호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서 ‘친환경’과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최근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코로나19 사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를 ESG경영에 적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점심시간에 조금 번거롭고 귀찮지만 지구를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볼까요?

4월에는 플로깅, 줍깅하기! 놀봄이랑 같이 실천해보자고요!

4월 챌린지 캘린더

CHECK! 챌린지를 실제로 실천한 날을 캘린더에 표시해 보세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음3.1	2
3	4	5 식목일 	6 한식	7	8	9
10 가족/연인과 함께 플로깅 데이트 	11	12	13	14	15 음3.15	16
17	18 	19	20 곡우	21	22 지구의 날 깨끗한 지구를 위해 플로깅 동참하기! 	23
24	25	26	27 	28	29	30



4월 챌린지 캘린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매월 한 가지씩 우리의 내일을 위한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4월 챌린지 캘린더를 사진으로 찍어 #월간내일 #그린리추얼 #4월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추천을 통해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드립니다. 혼자라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라면 훨씬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내일스타그램

이번달
늘봄이 이야기

국민취업제도

코끼리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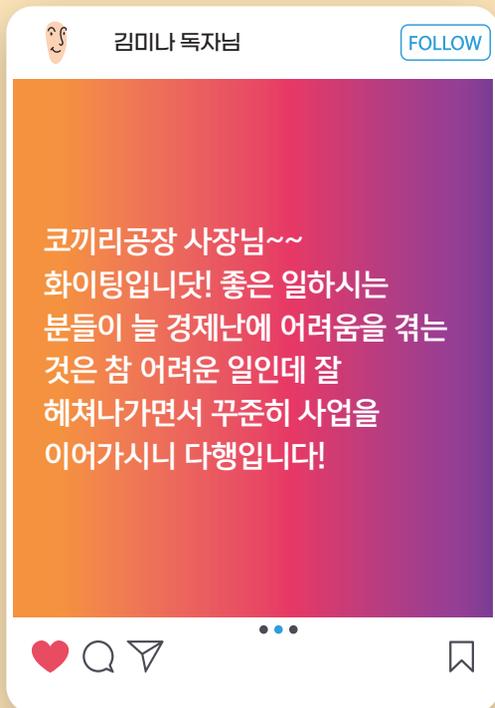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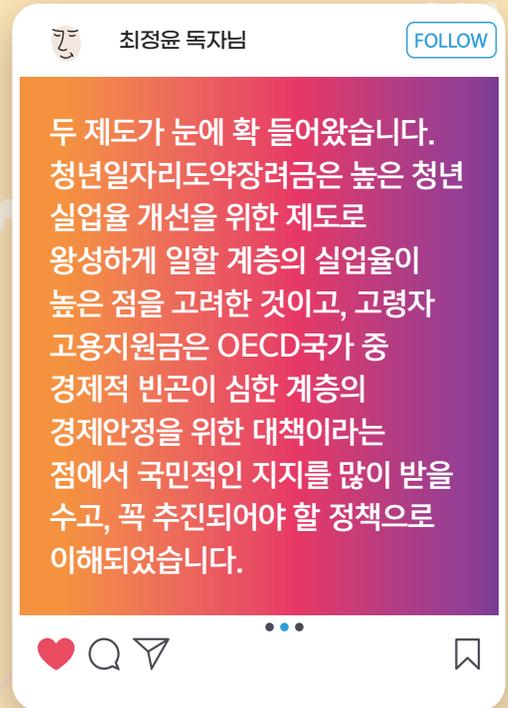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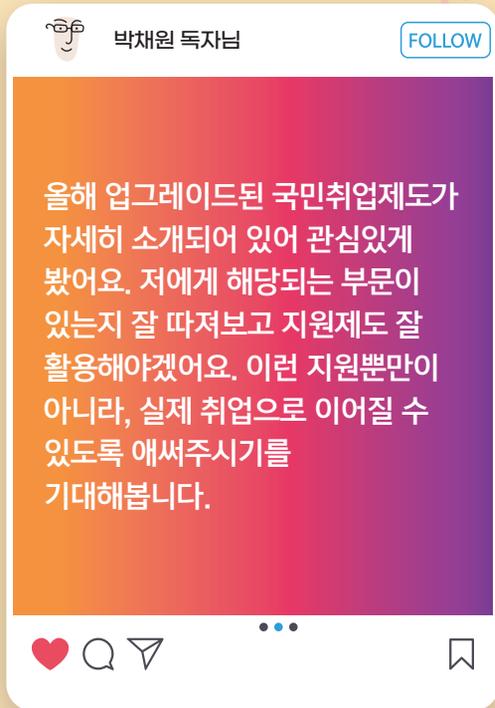
고령자 고용지원금

REVIEW



4월호 그린리추얼 플러깅(줍깅)
성공 인증샷과 소감을
#내일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5월호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주제
'사랑에 빠진 직장동료에게' 추천하는 #러브송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주세요.



월간내일 편집실로 날아온 독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나 월간내일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EVENT

숨은 늘봄이를 찾아라!

<월간내일>의 마스코트, 늘봄이가 4월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월간내일> 곳곳에 숨어 있는 늘봄이 중 나무를 심고 있는
늘봄이를 찾아서 정답을 남겨주세요.



참여방법

- 1 매거진에서 숨은 늘봄이를 찾는다.
- 2 카톡 플러스 친구에서 <월간 내일>을 검색한다.
- 3 카톡 플러스 친구를 맺고, 매거진에서 찾은 늘봄이 사진 혹은 페이지 번호를 남긴다.
- 4 당첨자 발표를 기다린다.

<월간내일>을 읽은 소감, 기대평 등도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Up! Up!
추첨을 통해 20명께 맛있는 디저트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기간: 4월 4일~4월 25일 / 당첨자발표: 5월 4일 개별발표

당첨자: 20명 / 이벤트 상품: 디저트 쿠폰



PLUS EVENT

새단장한 고용노동부 웹진 아직도 안 보셨나요?

새로워진 웹진 둘러보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도 남기고!
웹진만의 플러스 이벤트도 참여해보자고용~!

이벤트 참여방법

- ①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웹진>을 검색한다.
www.labor21.co.kr/webzine/vol63
- ② EVENT 탭을 클릭한다.
- ③ 이벤트에 참여한다.

플레이리스트 남기기!

- ①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웹진>을 검색한다.
www.labor21.co.kr/webzine/vol63
- ② 화면 아래에 나온 설문조사 탭을 클릭한다.
- ③ 5월의 주제 '러브송'에 맞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남긴다.

이벤트기간: 4월 4일~4월 25일
당첨자발표: 5월 4일 개별발표
당첨자: 10명
이벤트 상품: 커피 쿠폰



고용노동부 웹진 가기 Go Go!
www.labor21.co.kr/webzine



